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나의 가는 길

찬양 | 나의 가는 길

기도 |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읽는 내용이 낯설어도 끝까지 함께 생각하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사사기 17:10~13

❖ 집에 신상을 만들어 둔 미가가, 지나가던 레위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에요.

[개역개정] ¹⁰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¹¹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¹²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¹³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쉬운성경] ¹⁰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의 어른이 되어 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십 세겔 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¹¹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¹²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¹³ 그 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질문나눔

1. 미가는 레위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며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나요?(10절)
2. 미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3절)

삶의 이야기

1. 규칙을 내 편한 대로 바꾼 적이 있나요?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나눠봅시다.
2. 미가는 혼자 생각해서 정했어요. 나는 잘 모를 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축복 | 미가는 자기 방식으로 복을 만들려고 했어.

()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미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를 때 혼자 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걸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도 |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감동이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사사기 18:22~24

❖ 미가는 집에 신상을 만들어 두고 제사장까지 두면 복을 받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가져가 버리자, 미가가 쫓아가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개역개정] ²²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²³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²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나고 하느냐 하는지라

[쉬운성경] ²²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 때에 미가와 그의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왔습니다. ²³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사람들을 몰고 왔소?” ²⁴ 미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소! 또 당신들은 나의 제사장도 데리고 갔소. 내게 있는 것을 당신들이 다 가지고 갔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할 수가 있소?”



질문나눔

1. 미가는 무엇을 되찾으려고 사람들을 모아 쫓아갔나요?
2. 미가는 그것을 가리켜 "내가 만든" 무엇이라고 말하나요?(24절)

삶의 이야기

1. 미가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삼았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2.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무엇이든 솔직하게 나눠봅시다.

축복 | 사람이 만든 것은 누가 들고 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미가는 자기가 만든 신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빼앗길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